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	
		배포일자	2022년 3월 3일(목) 총 2매		 환경특별시 인천	
담당 부서	복지정책과	담 당 자	• 복지정책팀장 이순구 ☎ 440-2911 • 담당자 김윌하 ☎ 440-2915			
사진(이미지)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인천시, 취약계층에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196만개 지원

- 감염취약계층 선제 검사로 코로나19 확산 차단 위해 -
 - 어린이집, 노인사회복지시설, 임산부, 기초수급자 등 32만5천여 명 순차 지급 -

인천시가 영유아, 노인, 임산부 등 감염취약계층의 코로나19 선제검사 지원을 위해 자가진단키트를 지급한다.

인천광역시는 어린이집 영유아 및 교직원,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 코로나 취약계층 32만5천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 196만개를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.

시는 감염 취약계층의 신속한 선제적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난 기금을 활용해 자가진단키트를 구입하기로 했다.

먼저, 3월 중 어린이집 등원을 앞둔 시점에 맞춰 영유아의 보호강화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어린이집 영유아들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.

3월 5주까지 노인사회복지시설 이용자, 임신부, 노인외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순으로 순차적으로 군구를 통해 배부할 계획이다.

* ❶ (2월 4주~) 어린이집(영유아), 노인 사회복지시설, ❷ (3월 1주~) 임신부, ❸ (3월 2주~) 어린이집(교사), ❹ (3월 3주~)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 시설 이용자 등, ❺ (3월 5주~) 취약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중증장애인)

임신부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.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수령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면 가족도 대리수령 할 수 있다.

이번 자가진단키트 지원은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서 어린이와 노인복지시설 이용자, 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김충진 시 복지국장은 “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 지원이 감염자의 조기 발견과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”며 “앞으로도 감염취약계층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